



Emmanuel

임마누엘 [예배호]

Vol.19 December 23, 2018

Contents

Vol.19 December 23, 2018

I. 예배호를 열며	02	말씀의 창 - 요한복음 4:23
	04	담임목사 칼럼 - 예배의 기쁨을 맛보고 계신가요?
II. 빛과 소금으로	06	믿음의 선진들 - 로버트 하디 선교사
	08	공예배 현장 -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2부 중고등부
	10	시대를 분별하라 1 - 빠르게 확산되는 새로운 중독 (기자의 눈)
	12	시대를 분별하라 2 - 중독과 청소년의 현실 (목회자의 눈)
	14	임마누엘 인터뷰 - 사랑방 사람들
III. 설민한 물기	18	시가 있는 풍경 - 이사
	19	전도팀 - 전도자란 무엇인가?
	20	임마누엘 카툰
	22	임마누엘 레시피 - 온 가족이 함께 만드는 핏자
	24	함께라서 좋아요 - 장애인 에티켓 배우기
	25	예배 캠페인 - 함께 지켜요
	26	그림 이야기 - 왕들의 경배
	28	크리스천 명언 - 루처
	29	Christmas Activities - 다 함께 즐겁게
	30	크리스마스 이야기 - 제 방으로 오세요
IV. 임마누엘 사람들	32	나의 사랑하는 책 -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천사도 흠모하겠네
	34	부활의 증인 -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
	36	유스 멕시코 단기선교 - MYO Testimony
	37	유스 산호세 단기선교 - My masked feeling
	38	유스 샌프란시스코 단기선교 - "What My Time at SF City..."
	40	네팔 단기선교 -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
	42	세례 간증 - 예수님과 나의 1일째 되는 날
	44	성경학교 수료 간증 - "성경 탐구 40일"을 수강하며
	46	나의 노래 -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48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50	사랑의 편지 - 엄마랑 아들이랑 임마누엘 부서 사역 소개
	52	1. IT 선교부와 함께하는 코딩 사역
	54	2. 가정사역부
	56	건강 칼럼 - 독감



말씀의 창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요4:23, 개역개정)

*But the hour is coming, and is now here,
when the true worshipers will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truth,
for the Father is seeking such people to worship him.*

(John 4:23, ESV)





예배의 기쁨을 맛보고 계신가요?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서 자라며 산 아래 작은 언덕 위에 있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봄이면 예배당을 올라가는 길에 셋노란 개나리가 만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오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부르던 추억, 예수님 탄생에 관한 성극도 하고 나누어주시는 과자를 맛있게 먹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시골 교회에서 평소에 예배를 드리며 기쁨을 누렸던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처음 예배의 기쁨을 느낀 것은 1968년 봄에 중학교 입학차 서울로 올라와서, 금호동 산동네에 있던 교회에서입니다. 그 교회에 가서 처음 드린 예배는 수요일 저녁 예배였는데, 그 예배는 이전에 시골에서 드렸던 예배와는 아주 다른 예배였습니다. 설교 말씀이 어린 저의 마음에 와닿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예배에 있었습니다. 이후 이어진 50년의 세월은 예배의 깊이와 기쁨을 알아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며 알아 온 예배의 핵심은 '만남'입니다. 어렸을 때 설날 아침이 되면, 어머니는 형과 저에게 옷을 입히시고 친족 어른들께 세배를 보냈습니다. 집을 찾아가면 어떤 어른은 안 계셔서 세배를 못 드리고 그냥 돌아와야 했습니다. 세배를 받으실 분이 안 계시면 세배가 이루어질 수 없듯이, 예배도 동일합니다.

예배는 반드시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고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 중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예배당 시설이 좋고 예배의 순서가 훌륭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만남이 없으면, 예배는 결코 예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평소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사 1:11-20). 또한, 주일에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 곧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렘 29:12-13, 요 7:37). 그리하면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보고 싶어 하는 자녀의 마음보다 자녀를 보고 싶어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더 간절하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인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큼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예배를 더 기다리십니다. 경건한 삶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우리의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 진정한 자유함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글 | 손원배 담임목사



원산 부흥 운동의 주역, 로버트 하디 선교사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출생한 로버트 하디(Robert A. Hardie(하리엄), 1865~1949)는 1886년 토론토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당시 미국과 캐나다의 교계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와 무디 등을 중심으로 한 부흥 운동의 영향으로 대학캠퍼스에서 YMCA를 중심으로 '세계선교'운동이 불붙고 있었다. 의과대학생이었던 하디는, 토론토 YMCA에서 무디의 설교에 감동하여 한국 선교사가 된 학교 선배 게일(J. S. Gale) 선교사의 간증을 듣고 선교사로 가기로 했다.

1887년 켈리와 결혼한 하디는 의과대학 졸업 후, 1890년 교단(敎團)의 배경 없이 캐나다 토론토대학 YMCA 선교회 지원으로 파송 받아 가족과 함께 의료 선교사로 내한하여 게일과 함께 부산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당시 유일한 의원이었던 제중원에서 잠시 일하다가 1892년부터는 원산에서 의료선교 활동을 시작했고, 1898년 캐나다대학선교회와의 계약 기간이 끝나자, 미국 남 감리회 소속 선교사로 교단의 지원을 받으면서 1899년에는 개성에 병원을 설립하고 계속 선교 활동을 하였다.

원산에서 사역하는 동안, 교단의 지원 없이 이렇다 할 결실을 얻지 못하여 좌절의 세월을 보내던 하디에게 3명의 캐나다 선교사 럽(A. J. Rubb), 펜윅(M. C. Fenwick), 루이스

맥컬리(L. H. McCully)가 합세하면서 새로운 선교전략을 짜게 되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기도 모임을 갖게 되었고, 중국 선교사였던 화이트 여사의 제의에 따라 1903년 교파를 초월한 원산지역 선교사들과 신도들을 위한 성경공부와 기도를 위한 특별집회를 1주간 갖게 되었다.

하디는 이 모임을 통해서 강원도 북쪽에서 몇 해 동안 애써 일했으나 결실을 못 맺은 사실을 고백하다가 선교사로 오게 된 자신의 동기를 반성하고 자책하던 중,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는 사역의 실패 원인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한국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교만하였으며 게으름에 빠져있었음을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 자신의 교만, 닫힌 마음, 신앙의 부족을 고백하면서 구원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의 회개에 가득 찬 고백은 모인 선교사들과 교인들에게 감명과 은혜가 되어 죄를 자복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였고 자신도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을 경험했다. 하디의 성령 충만, 영적 갱신은 원산 성령강림 운동으로 발전했고 이 같은 부흥 집회는 1904년 2월 개성으로 확대, 1904년 3월에는 서울에서도 부흥 집

회가 계속되면서 그의 죄 고백과 회개운동은 동료선교사들과 더 나아가 한국 교계의 지도자들과 사역자들에게도 퍼졌다. 이것이 한국교회 부흥의 불이 지펴지는 발판이 되었고, 1907년 한국교회 대부흥 운동의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 선교사들은 한국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의 충격을 당시 선교보고서에 자세하게 기록하였으며, 조선인 조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죄 고백 내용은 돈, 흡연, 여자, 노비, 술 문제 등 아주 다양하였다. 원산교회의 회개와 중생의 체험은 지금까지 '서양종교'로만 알려진 선교사들의 종교가 이제는 '조선사람들의 종교'로 승화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후로 한국의 기독교는 구한말(1900-1910) 한국의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도 조용히 내적으로 성장하였다.

'한국 신학성서'와 하디의 '신학 월보'가 1900년에 출간되고, '천로역정', '사인필지'가 출판되었으며 초기 성경학교와 기독교 청년회 및 평양신학교가 설립되었다(1903). 이에 따라 한국의 젊은이들이 점차 기독교에 관심과 희망을 품기 시작했고, 개화와 교육, 국가에도 눈을 돌리게 되었다. 그 후 하디는 1909년부터 1922년까지 협성신학교 교장, 피어선 성경학교 교장을 역임하면서 신학 교육에도 힘썼다. 서울 제중원에서 예비선과 의료 활동을 하고, '세브란스의전'에서 의사(1917~1918)로도 활동하였다. 그는 1916년 선교잡지 '신학 세계'를 창간하고 1909년부터 1922년까지 감리교 협성신학교 교장을 역임하면서 1916년에는 신학 세계를 창간하였으며, 1921년부터 1927년까지 조선 예수교서회 총무 일을 보면서 문서선교에도 큰 공적을 남겼다. 그는 '조선 농촌 구제책'이라는 저서도 출판하였는데 얼마나 그가 조선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다.

하디가 시작한 원산의 죄 고백과 회개운동은 평양의 기도 운동과 성경 중심의 부흥 운동으로 발전하여 모든 교파와 교단을 초월한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 결과 교회 연합활동도 활발하게 되었고, 외국 선교사들과 조선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 또한 그가 주

도한 학생운동을 통해 많은 조선의 청년들이 개화에 눈을 뜨게 되었고, 신교육을 받아 후일에 YMCA를 거쳐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1920-20). 하디는 한국 성령 운동의 불씨를 지핀자요, 조선의 독립운동에 젊은 기독교인들이 참여하도록 주선한 독립운동의 산파였으며 민족 복음화 운동의 선구자였다. 1935년 은퇴 후 귀국하여 1949년 6월 30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서울 양화진 묘지에는 한국에서 태어나 어려운 환경에서 일찍 세상을 떠난 큰딸 매리(Marie)와 작은 딸 마가렛(Margaret Joy)의 묘지와 함께 하디의 '영적 대각성 운동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출처 | www.webegt.com
편집부 제공 및 편집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2부 중고등부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역대상 29:9 하)

주님께 우리의 талан트를 기쁘게 드리는 2부 중고등부 임마누엘 장로교회 2부 중고등부(11:45 am)는 2017년 3월 5일 10여 명의 유스 학생이 모여 첫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본래 중고등부는 장년부 2부 예배 시간인 10시에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기존의 11시 45분 초등부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로 올라온 아이들을 위해 작은 시작을 하게 된 것이 지금은 스물그룹 선생님 13분을 포함하여 약 80여 명의 영혼이 2부 중고등부에서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2부 중고등부는 예배를 통해

1. 자녀들이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경험하고
2. 참된 제자를 양성하며
3.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4. 이들이 나아가 선교와 전도의 도구로 쓰이며
5.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녀로 자라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세대의 영혼 구원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5개의 리더십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찬양 시간을 리드하는 “찬양팀”,
- 기존의 학생들을 섬기는 “인리치팀”,
- 교회 밖의 안 믿는 히스패닉, 베트남 가정 등과 매주 수요일, 금요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는 “아웃리치팀”,
- 예배 중에 슬라이드와 음향 등을 담당하는 “미디어팀”,
- 그리고 예배와 2부 중고등부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뒤에서 도와주는 “예배/행정팀” 중고등부에 소속된 학생 중 반 이상이 각각의 팀에 속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타민족 outreach 사역에 중점을 둔 2부 중고등부

2부 중고등부는 Alviso, Rock Springs, Santa Clara, Cupertino 지역의 안 믿는 가정 타민족 학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꾸준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정인 이 아이들이 교회로 오는 발걸음을 굿뉴스 클럽의 집사님들과 학부모님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편 지원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아, 장년 3부 예배(11:45 am)에 출석하시는 이 지역 성도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부 중고등부 예배의 현장

장년 2부 예배와 English Ministry, 유치부와 유년부의 1부 예배가 끝나고 친교실과 예배실을 오가는 발걸음으로 바쁜 주일 오전 11시 45분, 그 발걸음의 한편에 뜨거운 열기가 흐르는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서둘러 들어간 중고등부 예배실에는, 가지런히 놓여있던 의자들을 가장자리로 치워놓은 채, 중고등부 학생들이 무리 지어 찬양을 합니다. 앉아서, 서서, 때로는 옆드려서, 가운데서, 저 구석에서 드리는 찬양의 모습은 저마다 다르지만, 웃이 벗겨지도록 열정이 넘치던 다윗의 찬양처럼, 모두 한목소리입니다.

찬양하던 중 갑자기 바닥에 엎드려 기도드리는 아이를 보니, 눈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모두가 경쟁인 이곳 베이 지역의 중고등 학생들이 이렇게 꽉 잡고 있는 믿음에 부모로서 눈물이 절끔 거리는 순간입니다. 초등부에서 올라온 아직 어린이의 모습인 6학년 아이들부터 성인이 다 된 12학년 아이들까지 모두 한 모습인데, 아직 중고등부에 속한 시니어 학생들이 1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린 후, 2부 중고등부의 헬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찬양이 끝나고 뉴커머 (새 신자) 소개의 시간인데 오늘은 타민족 아이들도 보이네요, 그중 한 아이는 학교 친구이자 2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한국인 친구의 설득으로 친구 부모님 차를 타고 함께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찬양과 기도, 따뜻한 반김 속에 진정한 기쁨을 찾는 모습이 보이네요.



브라이언 황 전도사의 말씀이 끝난 후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여 말씀을 매일 읽어 말씀으로 무장하겠다는 다짐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이 다짐에 함께 할 사람?” 이라는 말에 선뜻 손을 드는 친구도, 머뭇거리는 친구도 보이네요. 지금은 흔들리고 자신 없더라도 함께 다짐하는 친구들의 기도로 이 아이들도 곧 동참하게 되겠죠?

스물그룹 시간까지 마친 아이들은 부모님들과 굿 뉴스 클럽에서 준비해준 스낵을 함께 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13명의 선생님들은 매주 모이는 기도 모임에서 한 아이 한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메일 혹은 텍스트로 아이들 각각의 부모님들과 연락을 나누며 오늘날 한 뼘 자라난 아이들의 믿음을 함께합니다. 중고등부 아이 하나하나의 마음에 뿌려진 작은 씨앗이 말씀과 기도와 서로의 응원으로, 그리고 선생님과 부모님들의 사랑으로, 학교에서는 경쟁을 나누었던 친구에게 이제는 영생을 나누는 짝이 되는 과정이, 2부 중고등부 안에서 매주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17)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알고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성장하는 2부 중고등부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공 | 심미경 (2부 중고등부 교사 및 예배 팀장)
취재, 정리 | 김연희 (북부평원 폴라목장, 편집팀장)

빠르게 확산되는 새로운 중독

“혹시 줄(Juul) 알아요?”

“줄? 새로운 주스 이름인가요?”

실리콘밸리의 큰 인터넷 기업에 근무하는 A 씨가 올 초 심각한 표정으로 ‘줄(Juul)’이라는 회사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고 물어본 적이 있다. 전혀 들어보지 못한 브랜드였는데 회사 이름 이라고 했다. 실리콘밸리의 많은 회사를 취재하고 있으니 이 회사도 알 것 같다며 평판에 관해 물어본 것이었다. A 씨의 요지는 ‘줄’이라는 회사에서 인재를 공격적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줄’은 ‘글로벌 공급망’을 담당하고 있는 A 씨에게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제안했다. A 씨는 이 회사가 새로운 형태의 담배 회사라고 전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A 씨와의 간단한 대화 후 실제로 취재해 보니 ‘줄’은 놀라운 회사였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전자담배 회사, 줄은 무려 150억 달러(약 16조7535억 원)의 기업가치로 초기 라운드에 12억 달러(약 1조3402억 원)의 투자 유치해 해 화제가 되고 있는 회사다. 2015년 사업을 시작한 줄은 지난해(2017년)에만 매출액이 700% 올라 2억460만 달러(약 2425억 원)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최소 9억4260만 달러(약 1조55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9월 기준, 미국 전자담배 시장의 72.8%를 점유하고 있고 비상장 신생기업(스타트업) 가치 순위도 10위권 안에 드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가 ‘전자담배’ 회사라는 것은 역설적이다.

줄의 가장 큰 특징은 USB 플래시 드라이브 모양으로 겉모양은 담배라는 인식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소금 용액에 니코틴을 넣어 흡연한다는 느낌을 주면서도 연기가 거의 나지 않고 과일, 사탕 향기가 나기 때문에 주위에서도 흡연하는지 알 수 없게 한다. 니코틴 농도는 5%로 시중에서 유통되는 다른 전자담배보다 높다. 옆에서 피워도 역겨운 냄새가 안 나고 다른 전자담배처럼 액상을 충전하는 번거로움 없이 찢이라고 불리는 액상 카트리지만 바꾸어 주면 된다.

흡연자들의 평가는 이 줄 담배를 흡연하는 느낌은 일반 담배의 목 넘김과 유사하고 무화량(증기량)도 일반 담배 정도이고 담배 피우는 느낌과 거의 같다고 입을 모은다. 담뱃재도 없고 라이터 등의 도구를 별도로 소지하지 않아도

되고 사이즈는 일반 사프 심통 수준이기 때문에 휴대하기 편한 장점이 있다. 줄은 타르 등은 없지만 니코틴 함유량을 높였다. 줄의 니코틴 함유량은 3~5%에 달한다. 줄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맛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망고, 민트, 과일, 크림, 큐컴버 등의 맛이 있다. 민트는 멘솔 담배와 비슷하고 타바코는 담배 맛, 크림은 달콤하고 큐컴버는 메론 맛에 가깝다는 인식이다.

‘전자담배의 아이폰’이란 평가가 아쉽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특징은 정확히 청소년들을 파고들었다. 일반 USB처럼 생긴 데다 냄새가 나지 않을 뿐 아니라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서 판매하다 보니 미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모았다. 부모들이 ‘줄’에 대해 인식이 전혀 없던 틈을 타고 청소년들에게 빠르게 확산된 것이다. 실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올해 미국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전자담배 사용이 각각 77%, 50% 급증했다. 미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지난해 100만 명 수준이었는데 올해 무려 350만 명으로 늘어났다. 줄 담배가 ‘달콤한 맛’에 무심코 중독된 청소년들을 무장해제 시켰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시절부터 마셔온 ‘초코 우유’ ‘바나나 우유’ 또는 달콤한 아이스크림 등 향이 첨가된 음식들과 줄의 다양한 ‘맛’이 연결된 셈이다.

결국 FDA가 칼을 빼 들었다. FDA는 줄의 유행을 ‘전염병’ 수준이라고 보고 규제안을 발표했다. 특히 청소년들이 일찍부터 니코틴에 중독돼 일반 담배를 자연스럽게 피우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전체 흡연율도 올라갈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FDA의 스콧 고트리브 국장은 워싱턴포스트에 “새로운 세대가 니코틴에 중독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이를 방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에 다니는 A 씨는 오랜 고민 끝에 ‘줄’로 이직하지 않았다. 이직했으면 큰돈을 만질 수 있었겠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아직 어린 아이들이 떠올랐다. A 씨는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받아서 많이 흔들렸고 그 회사도 기다린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제품이 청소년들에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엔 쉽게 (이직을) 결정할 수 없었다.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줄’의 성장과 FDA 규제까지 빠르게 결정됐다. FDA가 규제한다는 의미는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아직도 ‘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른(?)들이 대다수다. 집에 중고등 학생이 없다면 들어본 일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중독’은 무관심뿐만 아니라 과거 경험에만 의존하는 인간의 판단을 파고든다. 기존에 알고 있던 중독 현상은 담배, 알콜, 인터넷 게임 정도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합법화된 마리화나도 20~30대 사이에 빠르게 확산될 뿐만 아니라 마리화나가 들어간 맥주, 콜라 등이 개발된다는 소문도 나온다. 마리화는 중독성이 없다고 하지만 기호식품이 ‘중독’을 유발하도록 개발된 것은 상식에 가깝다. 새로운 중독 현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글 | 손재권 기자 (남부평원 브니엘목장, 매일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

중독과 청소년의 현실

손 재권 특파원을 통해서 요즘 호황에 호황을 거듭하고 있다는 줄(Juul)담배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었다. 전자담배 판매량이 청소년들에게서 급등했다는 소식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로서 내겐 큰 충격이었다. 그만큼 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큰 거리를 두고 현실에 둔감한 삶을 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신앙생활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여 일주일의 많은 시간을 교회와 관련된 영역에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결과는 아마 공통적인 현상일 듯하다. 나에게 자성의 마음과 우려의 마음이 함께 솟아 나온다. 기도로 세상을 향해 중보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떤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미국 공립교육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이들은 철저한 실용주의적(pragmatic) 가치관 아래에서 남의 사적인 영역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배우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느껴지는 차이점을 용납(tolerance)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를 습득한다. 한 가정에는 두 명의 어머니나 두 명의 아버지가 있는 아이도 있음을 배운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교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다양한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배운다. 또 미국의 시민으로서 헌법을 준수해야 함을 배우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헌법의 가치는 개인이 누려야 하는 자유에 있음을 그들은 배운다. 서서히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에 크게 벌어진 간극(틈)이 존재함을 느끼며 고민한다. 그리고는 그들의 부모들이 그랬던 것처럼 적당히 중간선에서 타협점을 찾아 '교회 따로, 생활 따로' 살아가는 방법을 주변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체득한다.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현실 세계를 피해 가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무엇인가에 깊이 빠져드는 것'이다. 그것이 술, 담배, 마약, 도박, 인터넷, 연예인, 스포츠, 혹은 무엇인가 간에 우리는 그러한 현상을 '중독'이라고 부른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레이더를 피해 자신만의 세계로 빠져들 무엇인가를 찾아 탐닉한다. 빠른 인터넷환경 속에서 스마트폰이나 각종 전자기기가 널려 있는 현실은 쉽게 그 속에 안착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현실은 마치 숲속의 독버섯처럼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아 유혹의 신호를 날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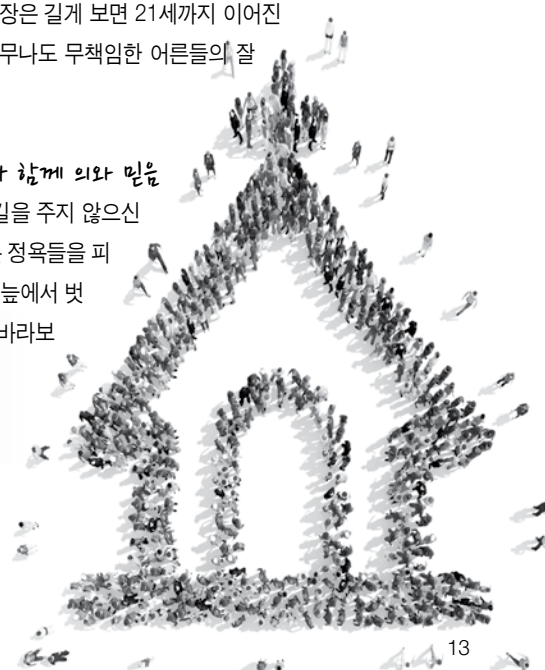
많은 교육가나 정신의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너무 이른 나이에 스마트폰 같은 기기에 중독되면 정서적, 신체적, 지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만 12세 정도까지는 자녀들의 집중력과 관계가 깊은 뇌부위인 전두엽이 급격하게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한 정신의학과 교수에 따르면 "스마트폰에 깊이 빠지는 시기가 어릴수록 지능, 감성,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심할 경우 뇌 질환이 생겨 나중에 치료를 받아도 고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자녀들을 향한 관심은 여기에 그칠 수 없다. 필로폰이나 헤로인 같은 중독성이 상당히 강한 향정신성의약품 외에도 대마초의 합법화와 더불어 청소년들은 너무나도 쉬운 경로를 통해 다양한 마약들을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대마초만을 놓고 본다면 담배나 알콜 등의 다른 것에 비해 훨씬 더 중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덜 해롭다고 말한다. 그 주장은 검증된 실험 결과로 놓고 보면 그렇다. 하지만, 너무나도 무책임한 발언이다. 대마초 같은 환각성 기호품, 혹은 중독성이 약한 마약으로 시작하여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환각의 세계가 고속도로처럼 얼마나 넓은 줄을 이들은 말하지 않는다.

줄의 유행이 전염병 수준으로 보아서 규제를 내린 FDA만큼의 양심도 이들에게 없다. (돈 때문인가 결국은?) 지금은 70년대 수준의 가벼운 오가닉 대마초가 판매되는 시기가 아니다. 요즘 판매되는 대마초는 각종 성분과 함께 섞여서 '악뺨'이 좋고 효과가 강한 제품으로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대마초의 주된 성분인 THC(tetrahydrocannabinol)의 기능은 명백해서, 이 성분은 특히 운동신경을 좌우하는 소뇌와 사고 판단력과 충동 제어 역할을 하는 전두엽에 영향을 끼쳐서 마리화나를 하고 운전했을 경우, 운동감각을 희미하게 만들어 운전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한다. 또 현실적인 감각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두엽의 활동을 비정상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현실감각'이 둔화된다고 말한다. 뇌의 성장은 길게 보면 21세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세계를 쉽게 용납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딤후 2:2).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길을 주지 않으신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길을 따르는 공동체 안에서 이 수많은 정욕들을 피해가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공동체를 꾸려가고 있는가? 온갖 유혹의 늪에서 벗어날 귀한 공동체에서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고 있는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질문이 되어야 하겠다.

글 | 박성호 목사 (북부평원, 화요여성예배, 신앙위원회 담당)





복음으로 낳은 사랑방 식구들의 아버지, 김항식 장로님을 찾아서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며 삽니다. 사랑방 식구들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겪은 분들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곳에 더 큰 은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문을 두드리게 된 사랑방. 비 오는 저녁, 따뜻한 사랑의 저녁 식사와 함께한 예배와 회복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사랑방 사역의 시작과 사랑방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 1월, 한 지인이 제게 찾아와서 이 지역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돕는 모임을 인도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처음 이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자격도 부족하고 중독과 관련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로마서 7, 8장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과 악을 행하고 싶어 하는 이 두 마음이 늘 싸우고 있는데, 불행히도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늘 패배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이 악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분들에게 성령의 힘으로 악을 이기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목요 사랑방 모임을 쉬 적이 없습니다.

2008년 2월, 7명이 모여 첫 모임을 시작한 사랑방은 도박이나 알콜 등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만이 중독을 끊을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30분에서 다 함께 저녁 식사 후 예배와 나눔을 가지며, 주일은 1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이분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점심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면서 지냅니다.



2. 사랑방 사역의 특별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신다고 했지만, 교회 밖 장소를 얻게 된 이유는,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교회에 오기를 꺼리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매우 부정적인 사람, 혹은 교회에서 만나자고 하면 야에 발걸음을 하지 않을 사람들도 있어서 봉사자 중 한 분이 작업 사무실을 넉넉하게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봉사자와 대상자 구분 없이 모두 “사랑방 식구들”이라고 부르며 실제 가족보다 사랑방 식구들을 더 자주 만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정부 기관, 법원 관련 일에 도움이 필요한 때도 같이 돕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로 저희가 모이고 있는 사랑방 기금이 있는데, 사랑방 식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생활비 일부를 보조해 주기도 하고 개인 재정 관리도 도와줍니다. 이분들 중에는 은행에 예금하는 것을 싫어하고 수중에 현금이 있으면 유혹을 느껴 다 없애는 경우가 많아서 장부를 만들어 돈을 저축해 주기도 합니다. 또 여러 사정상 아파트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랑방에서 아파트를 얻어서 10년째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인이 “교회를 안 믿으면 누구를 믿겠느냐?”면서 크레딧도 없는 분의 이름으로 꽤 저렴한 렌트를 주어서 현재 세 분이 거주하고 있으며, 때론 오갈 데 없는 분들도 잠시 머물다 가기도 합니다.

3. 사랑방 식구들이 세례 교인이 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랑방 식구가 있다면 사례 한 가지만 들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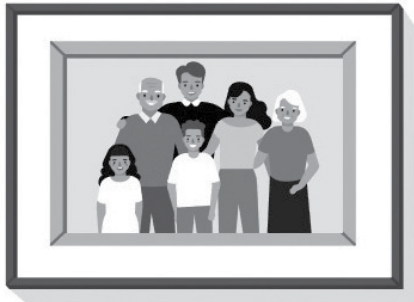
처음에는 본인들의 의지나 소개로 사랑방 모임에 나오지만, 사랑방에 몇 개월에서 1년여 계속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고 1~2년이 지나면 세례받기를 원하며, 손 목사님께서 직접 방문 하셔서 세례 문답을 해 주십니다. 올해만도 여섯 분이 세례를 받았고, 사역 이래 지금까지 34명이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특별한 사연이 있지만, 그중 기억에 남는 분은 연변에서 중학교 선생님이었던 아주 건강하고 성실한 조선족 출신 분입니다. 부푼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미국에 왔는데 어느 날 친구를 따라 카지노에 갔다가 하루에 8천 불이라는 큰돈을 따게 되었고, 그 짜릿함을 잊지 못해 자꾸 도박장을 찾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우리 사랑방에 오게 되었습니다. 모임에 참석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세례도 받고, 하나님께 간증도 드렸습니다. 가끔 실족도 했지만 믿음을 지키며 잘 지냈는데 갑자기 stroke가 와서 투병 생활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랑방 식구들이 마지막 임종까지 잘 지켜 주었고, 천국에 간 확신이 있었기에 우리 모두 감사했습니다.

4. 사랑방 식구들의 재활 성공 사례와 우리 자녀들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부모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모임에 나오는 분들은 모두 열심히 재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에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요즘은 토요일 기도회도 참석하여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고 삶이 개선되어 가는 변화가 보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로 인해 우리 모두도 새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장 안에서도 안 믿는 목원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새사람이 되는 것이 있어야 목장 식구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신앙 속에서 살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을 보고 자랍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신앙의 본을 보일 때 악의 세력에 물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자녀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사랑방 사역 중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는지와 장로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과 찬양은 무엇인지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다 내가 하려고 열심을 다 했지만 아무런 열매를 보지 못해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

니다.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다시 대하고 나니 그동안 하나님의 영역을 범했던 것을 깨달았고 그 후로는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이곳에 같이 있던 다른 곳에 있건, 또 소식이 두절되더라도 같이 모여 찬양하며 나눈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는 싹이 나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고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먼저 간 사랑방 식구들을 생각하면,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컸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랑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례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러 분들이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사랑방에서 추모 예배를 주관하기도 하였고, 담임 목사님께서 집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금년 초 사랑방 식구 중에 한 분이 병환이 말기가 되어서 수소문 끝에 수십 년 만에 한국의 가족들(아내와 아들)을 어렵게 찾아서 만나게 된 일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미국으로 왔고 약 2주간 가족들과 상봉하여 화해와 용서의 시간을 가진 후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유가족들도 사랑방 식구들이 서로 가족처럼 지내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완전히 헛되게 산 것은 아니라면서 위로받고 가셨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찬양과 말씀은 많지만, 요즘은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과 에베소서 5장 15-16절을 특히 좋아합니다.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엡 5:15-16)

6. 향후 사랑방의 장·단기 계획은 무엇이며 성도들이 사랑방 사역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단기 계획으로는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국내 선교를 한 번 가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이분들도 자신들이 도움을 받은 만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례로 올 8월부터 사랑방도 산호세 지역에 소속된 목장으로서 네팔 새빛 선교회 사역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방 식구들이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자부심도 갖게 되었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방은 교회의 타 부서 봉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공홀히 여기는 마음이 많은 분들께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바로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선교하는 아름답고 보람 있는 봉사이며 공홀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7. 끝으로 당부의 말씀과 사랑방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요?

사랑방 식구들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진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다른 모든 성도님들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식구들이 성령 충만한 생활로 다가오는 여러 유혹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근 11년 동안 사랑방 사역을 계속 잘 감당해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방 식구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섬김이 있었고, 순 목사님과 교회의 끊임없는 기도와 지원, 여러 성도님들의 사랑과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2:8)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선물을 인하여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 일진데, 한번의 실수로 중독에 빠졌던 지체들을 정죄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얼마나 어불성실인지요. 사랑방 식구들에게 똑같이 부여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엿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회복의 성령님께서 사랑방 식구들과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믿으며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글 정리 | 한연선 (산호세평원 쿠칭목장 부목자, 편집부 편집팀), 김정신 (남부평원 브니엘목장 부목자, 편집부장, 2부 예배 안내팀)
사진 | 여환승 (산호세평원 쿠칭목장, 편집부 사진팀)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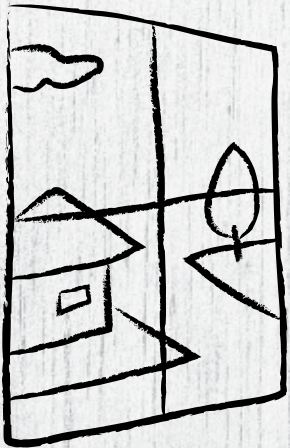
옆집 선교사님이 이사를 간다
 이삿짐 싸는 것을 도와 주려 하니
 쌀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몇 년 전 이사 올 때도
 여행용 가방 몇 개만 들고 왔다

몇 년 사이 쭉쭉 커 버린
 아들 녀석 키 말고는
 늘어난 것이 없다며
 단출한 짐을 챙겨
 이사를 간다

부름이 있는 곳으로
 가볍고 자유롭게
 가방 몇 개만 달랑 들고

시 | 정혜성 (목사, 사모, 시인)



전도자란 무엇인가?

전도자는 이웃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권하는 사람일까? 우리는 존 번연이 지은 『천로역정』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전도자는 다가올 진노 앞에 회개를 권하는 사람이다.

『천로역정』에 나오는 천국의 순례자 크리스천이 성경을 읽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를 외치는 순간, 죄와 구원이라는 두 주제가 그를 무겁게 사로잡게 된다. 마침내 그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라는 구체적인 구도의 질문을 던진다.

이때 크리스천 앞에 다가온 사람이 전도자였다. 전도자가 그에게 묻는다. “당신은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크리스천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으며, 그 후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등에 짊어진 이 무거운 짐은 결국 저를 지옥에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한다. 이때 전도자는 그에게 양피지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이 말씀을 읽어 준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마 3:7).

여기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학이 말하는 회개이다. 회개는 희랍어로 ‘메타노이아’(metanoia)라고 하는데, ‘방향을 돌이키라’는 뜻이다.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다.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죄의 삯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진노요, 지옥이기 때문이다. 『천로역정』의 크리스천은 전도자의 말을 듣고, 멸망의 도시(세상)를 떠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었다.

둘째, 전도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권하는 사람이다.

전도자가 보여 주는 말씀을 함께 읽은 크리스천은 그에게 다시 묻는다. “그럼 이제부터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때 전도자는 넓은 들판을 가리키며 “저 멀리 좁은 문이 서 있는 게 보입니까?” 크리스천이 잘 안 보인다고 하자, “그럼 저만치 비치는 환한 빛은 보입니까?, 그 빛에서 시선을 떼지 말고 가면 당신은 내가 말한 그 좁은 문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 당신은 천성으로 가는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때 전도자가 보여 준 말씀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마 7:13~14)였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좁은 문은 단순히 들어가기 어렵고, 넓은 문은 들어가기 쉽다는 것이 아니다. 들어가기 어려운 좁은 문은 들어가려는 사람이 적고,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넓은 문은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처럼 진리는 반드시 다수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때로는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이웃들이 내가 선택한 진리의 길을 반대할 수 있다. 그래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 전도자는 궁극적으로 영혼들을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안내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거부할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다른 삶, 세상의 사고와는 다른 유형의 삶을 요구하기 때문일 것이다. 좁은 문을 통과해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전도자가 보여 준 불빛, 곧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편 119:105).

진리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도덕이 요구하는 실용적 수준이 아닌,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은 많은 경우 고독한 길이다.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이해되지 못하는 외로운 길인 것이다. 『천로역정』의 크리스천도 그가 선택하여 떠나는 구도의 여정을 가족들이 반대한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그에게 어서 돌아오라고 말한다. 그의 이웃들도 비아냥거리거나 협박하며 돌아오라고 소리친다. 그러나 그는 전도자가 보여 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만 했다. 그것이 그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길이었기 때문이다.

출처 | 『이동원 목사와 함께 걷는 천로역정』
 편집 | 편집부

피곤하신가요?



늦으셨나요?



문이 열리길 기다리시나요?

주님께 드리는 예배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남아셨나요?



"아버지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 요한복음 4:23



온 가족이 함께 만드는 피자

어느덧 무더운 날씨가 지나고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시작할 때가 된 듯 하여 벌써 마음이 분주합니다. 캘리포니아의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가 너무나 감사하지만, 가을이면 단풍이 들어 사각사각 낙엽길을 걷던 기억, 겨울이면 추운 날씨에 오돌오돌 떨던 기억이 나면서, 이맘 때가 되면 한국이 유난히 그리워지곤 합니다.

학창시절 친구들과 먹던 떡볶이도, 추운 날씨에 호호 불며 마시던 어묵탕도, 부모님이 귀갓길에 사가지고 오시던 군고구마와 호떡까지... 어린 시절 기억과 더불어 그때 먹던 음식들이 생각나면서, 옛 추억이 생각나 아이에게 군고구마며 호떡을 만들어 같이 먹자고 하면, 아이의 반응은 사실 뜻밖이지곤 하더군요. 미국 생활을 하면서 아이와 이런 추억들을 공유하지 못함에 조금은 섭섭함이 들곤 합니다. 고구마나 떡보다는 치즈나 빵을 더 좋아함이 당연함에도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밀가루 음식을 참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도 날씨가 추워지면 생각나는 음식 중 하나가 수제비입니다. 칼국수를 파는 식당은 종종 보는데, 수제비를 파는 식당은 별로 없어서, 먹고 싶을 때면 가끔 반죽을 만들어 집에서 해 먹곤 합니다. 하루는 수제비 생각이 나서 반죽을 하는데 아이 반응이 영 별로더라고요. 이미 밀가루 반죽은 시작을 했고 아이는 수제비가 싫다 하여, 뭘 만들어야 하나 고민하다 피자 먹고 싶다는 아이 말에 피자도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와 같이 밀가루 반죽을 만들고, 여러 가지 재료를 급조하여 피자 모양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밀가루가 여기저기 날리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예상과 달리 주방을 번잡하게 어지럽히긴 했지만, 아이와 같이 웃고 떠들며 음식을 만들었던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이도 본인이 만든 음식이 어떻게 완성될지 기대하면서, 오븐 앞에서 설레하는 모습이 얼마나 이쁘던지...

요새도 아이가 가끔씩 피자를 만들자고 하며 들떠 하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신이 나곤 합니다. 피자를 만들어 아빠 회사에 가져가고도 하고, 목장모임 친구들에게 가져다 주고 싶다며 열심히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이 있어 그 시간을 기억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풍족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방이 조금은 지저분해지고 수고스럽겠지만, 올해가 가기 전, 아이와 혹은 가족들과 함께 피자가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며 소중한 시간을 나누어 보는 건 어떨까요?

집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피자 레시피를 알려드립니다. 재료는 원하는 대로 마음껏 넣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 아이의 첫 피자는 포도 피자였습니다. 포도 피자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하여 포도와 치즈만 맘껏 올려서 신나게 먹었습니다.

[피자 도우 만들기]

밀가루 3컵, 따뜻한 물 1컵, 이스트 2티스푼, 소금 1티스푼, 설탕 1/2 티스푼, 올리브 오일 2스푼
위의 재료를 조금씩 넣어가며 반죽을 만듭니다. 반죽기나 제빵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만들 수 있고, 손으로도 물론 가능합니다.

반죽은 손이나 롤러를 이용하거나 얇게 펴준 후, 원하는 모양대로 피자 도우를 만들어 줍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트리 모양, 눈사람 모양 등을 해도 좋을 것 같네요. 포크 등을 이용해서 피자 도우에 구멍을 송송 내줍니다.

소스를 바르고, 토마토, 버섯, 올리브, 치즈 등 원하는 토핑을 올려서, 화씨 450도 정도에서 15분 정도 구워주면 완성입니다.

글 | 이진경 (산호세평원 요르단목장, 편집부 편집팀)

01 뇌전증이나 발작 장애가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뇌전증(간질)은 뇌 신경계의 이상으로 발작 등을 유발하는 장애입니다.

일단 발작이 발생하면, 발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머리를 잘 보호해주고, 발작이 멈추기를 기다립니다.

발작 증세가 멈추면, 일시적으로 혼란스럽고 당혹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스스로 추스를 수 있도록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주면 좋습니다.

경고음 같은 소음이나 섬광 같은 불빛은 발작 증세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니다.

02 외상성 뇌손상 장애가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사고나 뇌졸중(중) 등으로 뇌에 손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뇌 손상으로 몸놀림에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 손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충동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부적절한 언사나 언행으로 본인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 손상 장애인은 단기 기억의 손실로 지시를 잘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움직임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곁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뇌 손상 장애인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글로 적어서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 자극이 많은 환경에서는 집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도와주며, 조용한 곳으로 유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공 | 사랑교육부



올바른 예배 수칙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이며,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 임마누엘 성도 누구나 지켜야 할 예배 수칙을 소개합니다.

- ✓ 예배를 위해 토요일은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 ✓ 예배에 지각하지 않도록 15분 일찍 출발합니다.
- ✓ 경건한 예배를 위해 휴대폰 전원은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합니다.
- ✓ 예배당 입실 후 예배를 위해 먼저 조용히 묵상기도 하거나 성경을 읽습니다.
- ✓ 주일 예배는 예배 시간 20분 전부터 찬양과 함께 시작됩니다.
- ✓ 말씀 선포 때와 찬양대 찬양 후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배 시간에 즐기거나 SNS를 하지 않습니다.
- ✓ 온전한 예배를 위해 축도가 끝난 후에 예배실을 나갑니다.
- ✓ 예배 때 편리한 휴대폰 대신 무겁더라도 성경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 ✓ 안내 위원의 안내에 따라 앞자리, 가운데 자리부터 채워 앉습니다.
- ✓ 예배실에는 음식물 (커피, 음료 등) 반입을 금합니다.
- ✓ 교회 내 비치된 비품(볼펜 등)은 사용 후 제자리에 둡니다.
- ✓ 예배 후 다음 예배를 위해 각자 앉은 자리를 깨끗이 정리합니다. (성경책, 소지품, 주보, 휴지, 옷가지, 휴대폰 등등...)
- ✓ 예배 때 복장은 단정하게, 지나친 노출은 삼갑니다.
- ✓ 옆 사람을 배려하여 냄새가 진한 화장품이나 향수 사용은 자제합니다.
- ✓ 예배 전후에 옆 성도들과 서로 반갑고 따뜻한 미소를 나눕니다.

제공 | 편집부



The adoration of the Kings by Eugene Delacroix in 1830



St. Priscilla's catacombs-The Magi with the Madonna and Child

사진 출처: https://archive.com/artists/232-Eugene_Delacroix/works/461979-The_adoration_of_the_Magi_Rubens
<https://www.catholiccompany.com/getfed/catacombs-of-st-priscilla/>
<https://commons.wikimedia.org>
<http://wikioo.org>

왕들의 경배

외젠 들라크루아 (1798-1863)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옆드려 아기에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 2:11)

외젠 들라크루아는 계몽주의의 차가운 합리성에 반발하면서 감정과 정서를 강조했던 프랑스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들라크루아는 당시 화가들이 구체적이고 선명한 선을 강조하는 사실적 묘사에 치중한 데 반하여, 적색, 녹색, 푸른색, 오렌지색 등을 풍부하게 사용하고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섞어 사용하면서 색과 운동감을 강조한 화가였습니다. 물론 그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나 《알제의 연인들》과 같은 작품들이지만, 《왕들의 경배》와 같은 성화도 간혹 그리곤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초대교회부터 중요한 성화의 주제였습니다. 그 이유는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그분의 구원이 이방 세계에까지 확대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왜 동방박사가 세 명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동방박사들의 인원수나 출신 등의 명확한 언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장 오래된 동방박사들의 경배 이미지는 4세기 초반 로마의 프리실라 카타콤의 벽화에서 나타나는데, 이 그림은 동방박사를 세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6세기 산 아폴리나레 누오보 교회의 모자이크화에서도 세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멜키오르(Melchior), 가스파르(Gaspar), 발타사르(Balthasar)라는 그들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가져온 예물이 세 가지였기 때문에 세 사람으로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St. Priscilla's catacombs-The Magi with the Madonna and Child

이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데, 일반적으로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그리고 시체의 부패를 막아주는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희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세의 대표적 신학자인 클레르보의 베르나르(Bernard of Clairvau, 1090~1153)는 황금은 요셉의 가난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며, 유향은 마구간의 공기에 향기를 더하기 위한 것이며, 약초의 일종인 몰약은 아기의 건강을 위한 약제였다는 실제적인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라크루아는 자신의 그림을 왜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아닌 “왕들의 경배”라 이름 지은 것일까요? 10세기 이후에 동방박사들은 당시 소아시아인들에게 일반적이었던 페르시아풍의 의상을 입은 일반인이 아니라 왕관을 쓴 왕으로 묘사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고대 아르메니아 원전》에서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 인디아, 아라비아의 왕이자 조로아스터 교인들이며 천문학자였다고 전하고 있으며, 또한 시편 72편이 동방박사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니” (시 72:10-11)

들라크루아의 《왕들의 경배》는 험벗은 아기 예수의 모습과 경배하는 왕들의 화려로운 의상과 선물을 대비시킴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성을 역설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그림은 파

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루벤스의 《동방박사의 경배》를 보고 따라 그린 모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밀한 묘사를 중심으로 한 루벤스의 그림과는 다르게 선이 뭉뚱하게 그려져 있으며, 정서, 색감, 그리고 운동성이 강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루벤스 그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기천사들의 모습을 그림 상단에 삽입함으로써 예수의 신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무릎 꿇은 박사의 모습과 아기 예수를 올려다보는 그의 시선에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과 교감을 갈망하는 거룩한 열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매년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이번 성탄절은 과거와는 다른 더 거룩한 성탄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소망하며, 그분과의 깊은 인격적 만남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 박민경 (동부평원, 비취책목장)



Adoration of the Magi by Peter Paul Rubens in 1629



“하나님은 일보다 예배하는 자를 먼저 찾으신다.”

-루처

다 함께 즐겁게 :)

즐거운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가정이나 목장에서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뜻깊은 성탄 되시길 소망합니다.

1. 성탄 카드 돌리기

- 1) 큰 종이를 나누어 주고 각자의 이름을 쓰도록 한다.
- 2) 옆 사람에게 종이를 돌려 상대편 카드에 그림이나 축복의 말을 써준다.
- 3) 한 바퀴 다 돌면 크리스마스 카드가 완성된다.
- 4) 마지막으로 일부분을 리더가 읽어주고, 끝난 후 카드를 진열해서 서로의 것을 보고 즐긴다.

2. 캐럴 불러 짝 찾기

- 1) 여러 곡의 캐럴을 수집, 한 노래를 두 토막으로 나누어 두 종이에 따로 적는다.
- 2) 한 장씩 나누어 준 다음 “크리스마스 합창”하면 각자 자기 종이에 적힌 노래 부분을 부르며 짝을 찾아 노래를 계속하게 한다. (상품은 가장 먼저 찾는 짝에게)

3. 성탄 찬양 대항

- 1) 두 팀으로 나눠 사회자가 “성탄 찬송가 중 아무거나” 하면 적당한 노래를 끝까지 부르지 않고 한 소절만 부른다.
- 2) 사회자가 다른 팀을 지적하여 다른 노래를 부르게 한다. (노래가 곧바로 나오지 않거나 상대 팀이 불렀던 노래를 부르면 실패)

4. 줄잡아 선물 낚기

- 준비물: 끈, 선물, 방석, 종이
- 1) 각자 가져온 선물에 끈을 매달고 그 끝에 종이를 달아 표시해 놓고 각각 나란히 진열한다.

- 2) 선물을 분간 못하게 끈을 교체시키고 끈이 교체된 부분을 방석으로 덮는다.
- 3) 원하는 끈 앞으로 가서 선물을 낚는다.
- 4) 팀마다 빈 상자를 더 준비, 빈 상자를 낚는 사람은 벌칙을 받는다.

5. 크리스마스의 시간

- 1)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카드 세트를 인원 수대로 만든다. (8명이면 7장 8세트)
- 2) 7장의 종이카드를 마구 섞어서 각 사람에게 7장씩 나누어준다.
- 3) 일어나 돌아다니며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카드 중 하나를 가지고 자신에게 필요 없는 카드를 상대방에게 준다. 계속해서 카드를 바꾸어가다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카드가 완성되면 이긴다.

6. 산타 할아버지 수염 떼기

- 준비물: 눈썹과 턱수염을 그린 포스트잇
- 1) 두 사람씩 나와 눈썹과 턱수염이 그려져 있는 포스트잇을 얼굴에 붙인 후 얼굴 근육만을 이용해 수염을 떼다.
 - 2) 먼저 떼는 사람에게 상품을 수여한다.

7. 축복하기

- 준비한 모든 순서가 끝나면 진행자는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옆 사람을 축복하도록 인도한다.

제공 | 편집부



“제 방으로 오세요”

학창시절, 친구들과 산뜻하게 웅기둥기둥 둘러서서 연문을 녹이기도 하고, 차가워진 양은 도시락을 따끈하게 데워 두면 또 개탄산로처럼, 따뜻하고 감동이 있는 크리스마스 이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어느 크리스마스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화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는 어느 날, 이 학교에서는 성탄절 특별 드라마를 준비하기 위해 연극에 등장할 배우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랄프라는 4학년 학생이 있었는데, 누구보다 연극을 하고 싶어했지만, 그는 연극에 출연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랄프가 선천적으로 말을 더듬고, 생각도 민첩하지 못한 일종의 정서 장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장애는 심했지만, 랄프가 연극을 하고 싶어하자 선생님은 어떻게든 랄프에게 웅기를 주고 싶어 배역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은 랄프에게 가장 적합한 배역이 무엇일까 생각 끝에 액션이 거의 없고 대사도 가장 적은 배역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과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를 맞이하는 여관 주인의 역할이었습니다.

랄프가 맡은 장면은 요셉이 잉태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여관 문을 두드렸을 때, 여관 주인이 나와서 한마디 말만 하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사는 “방이 없어요”라는 단 한마디입니다. 선생님은 이 대사 정도는 랄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매일 연극 연습을 열심히 시켰고, 랄프도 “방이 없어요”를 정성스럽게 또박또박 발음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연극의 내용상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 주인과 몇 마디 더 주고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셉이 “그럼, 큰일났는데요. 제 아내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봐 주세요”라고 말하면 “방 없어요”라고 같은 말을 세 번 반복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크리스마스가 되었고, 연극이 시작되자 연극을 지도했던 모든 선생님들은 숨을 죽이고 랄프가 어떻게 역할을 감당하는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 앞에 도착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마리아를 부축하며 요셉이 다급히 여관 문을 두드리자 드디어 여관 주인이 나왔습니다. 랄프는 나와서 또박또박 연습한대로 말을 했습니다. “방 없어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가지 않고 여관 주인에게 한번 더 매달렸습니다. “그럼, 큰일났는데요. 제 아내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방을 줄 수 없나요?” “방 없어요.”

그때까지 랄프는 아주 또박또박 말은 배역을 잘 해나갔습니다. 이제 한번만 더 하면 대성공이었습니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여관 주인에게 사정합니다. “이렇게 사정하겠습니다. 이 추운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곧 아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방을 좀 주세요.” 이 말을 듣자 갑자기 랄프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제 방으로 오세요” 랄프는 연극의 약속을 깬고 그 이후의 내용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랄프의 그 말 뒤에 숙연한 감동이 물밀 듯 밀려들었습니다. “그러면요. 제 방으로 오세요.”

(이야기 출처: [HTTP://BLOG_DAUM.NET](http://blog.daum.net))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거리 곳곳에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와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캐럴 소리에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커다란 풍선처럼 들떠 있습니다. 바빠 움직이는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과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며 삼삼 가둬 쌓인 선물들,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과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아이들은 오래전부터 산타할아버지의 선물을 손꼽아 기다리는데, 정작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시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자리는 있는지, 그분에게 우리들의 방을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는지 깊이 묵상해 봅니다.

제공 | 편집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으로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리라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11)

아이 셋을 키운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나름의 삶에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가끔 목장에서 미지근한 나의 신앙생활이 진부하다고 투정 부리듯 나누기도 하였지만, 편안했습니다. 특별히 걱정할 것 없는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을 무렵, 막내 아이가 밤에 자는 중에 움찔 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잠버릇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지내다 혹시나 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뜻밖에 뇌전증이란 진단명을 받았고, 오랜 시간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날 잠버릇으로 치부하고 싶고, 병명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아 하는 저를 나무랐던 의사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울면서 병원을 나오며 '그래 한 가지 약으로 75%는 완치된다잖아, 우리 아이는 그들과 보이는 정도가 다르잖아' 라고 다른 환자들과 구분 지으며 자신을 달랬습니다. 약은 2주 간격으로 용량이 올라가면서 저는 2주마다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었습니다. 평안을 찾아가는 길도 어는새 두려움에 휩싸여 잠을 못 이루는 날들이 허다했고, 쉽게 약이 맞춰질 거라 생각한 것이 착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라면박스만 한 박스 가득한 약을 받아 들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여러 가지 정착의 스트레스와 병원을 찾는 일 등 수많은 산적한 일들과 캄캄한 상황이 우리 부부를 힘들고 예민하게 하였습니다. 이 무렵 남편은 아버지 학교를 등록했고 저는 기어가는 심정으로 집 근처 교회의 여성 예배를 찾았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서 앉자마자 들리는 찬양이 저를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제게 희망을 주셨고, 소그룹원들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셨으며, 주님은 먼저와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설교 말씀 중 들었던 한나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무엘을 갖기 전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한나는 늘 예배의 자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배의 자리가 있어야 할 자리임을 알았고, 그 자리가 애통해 하는 자리였고, 울부짖는 자리였으며, 그곳이 해결 받는 자리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 자리가 여기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성 예배는 제게 특별하며, 매시간 부으시는 은혜가 넘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으로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리라는 생각이라” 이 말씀은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권면해 주시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게도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을 통하여 다시 듣게 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믿어졌고, 이때부터 불안한 마음이 평안으로 옮겨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일으키시기 위해 더욱더 말씀과 찬양, 예배와 많은 사람을 통해 위로하셨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떨 때 너무 정확한 타이밍에 깜짝 놀랄 때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돌아보니 지난 3년여 동안, 지금까지 주위에 보석 같은 분들이 사방에 돌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님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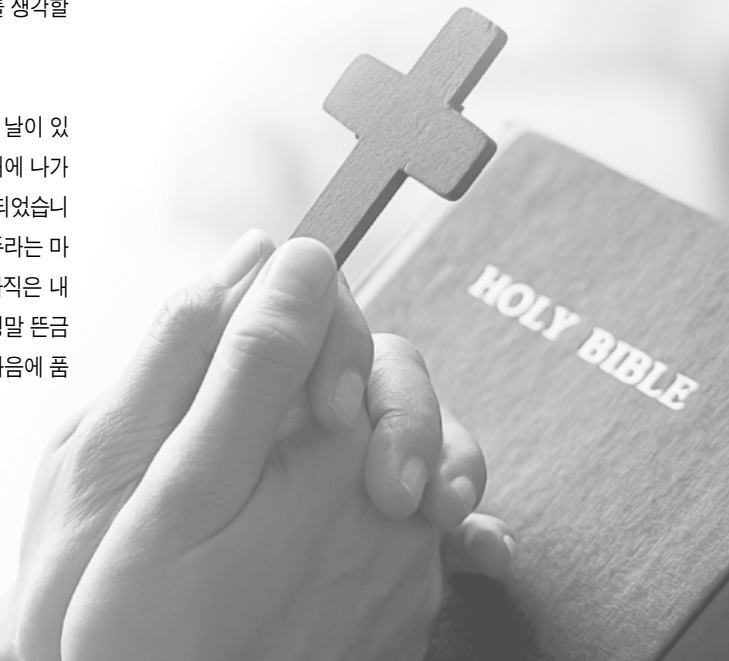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하신 주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저의 시선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곧 막내 아이의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 믿지만, 막상 날을 잡고 나니 고생할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더욱 맘이 먹먹합니다.

얼마 전 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새벽예배가 숙제인 날이 있었는데, 숙제도 할 겸 먹먹한 마음을 끌어안고 예배에 나가 기도하던 중 전혀 엉뚱한 생각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고, 아직은 내가 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해왔던 제게 이 마음은 정말 뜬금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새벽 하나님은 그 일을 마음에 품

고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는 날이었습니다.

3년 동안의 과정을 보며 어떤 사람들은 제자리 걸음이라며 안타까워도 하지만, 제가 느끼는 지난 3년은 계속 상승곡선이며, 과정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고, 우린 너무 평안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도 그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인도하셨고, 그 한 줄기 빛이면 됩니다. 나의 문제에 간혀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루하루를 은혜 안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글 | 손유경 (산호세평원 선봉목장, 새가족 2부 찬양팀)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15:4~5)

어느덧 벌써 10월 중순, 새벽 4시쯤 잠이 깨어 오늘은 왜 주님께서 일찍 깨우셨을까? 의아해하며 방에 불을 켵니다. 어젯밤 12시에 잠들어 피곤한데 지금 새벽예배를 나가라고 하시는 건가? 얼마 전 2주 동안 저를 5시에 깨우셔서 주님이 새벽예배를 나가라시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저와 대화 시간이 적다고 아침 Q.T 시간을 40분에서 최소 1시간 이상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에 쫓겨 예배드리는데 것이 아닌, 몸과 마음을 다해 시간을 두고 예배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알람은 5시 30분이라 새벽 4시는 참 이른 시간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제게 메세지를 주시기 위한 것임을 제 영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저는 침대에서 받아 적었습니다. '아, 이거구나!' '어제 내가 임마누엘 계간지 원고를 쓰지 못하고 근심하고 있는걸 아시고 일찍 일어나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네팔 선교지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말씀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래층에 내려와 언제나 기도드리는 자리에서 글을 이어 가며, 주님은 한분 한분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을 한없이 아끼시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영어 단어로 PRICELESS 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3부 찬양팀 연습 도중에 세 살짜리 딸 하은이가 제 콘티를 뺏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를 혼내는 방법보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보여주며 우는 시늉을 했지요. 그 모습을 본 하은이는 콘티를 주며 저에게 미안하다며 가져다주고 불에다 뽀뽀해줍니다.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는지요. 가끔 찬양을 들을 때 한 찬양이 너무 좋아서 무아지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따뜻하고 은혜롭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흐르며 주님께 감사하고, 또한 저의 죄가 씻겨져 나감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셔서 주시는 순간임을 알아갑니다.

어릴 땐 수줍음 많은 순진한 아이였지만, 커 가면서 많은 고난과 상처가 미움으로 물들여져, 악의 구덩이로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미움으로 인해 사탄의 노예가 된 저는, 사랑으로 다가오는 가족도 멀리하였고,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난폭군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길고 긴 기도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주님과의 첫사랑이 시작되었지만, 말씀과 기도

로 서지 못한 저는, 재물의 유혹에 빠져 세상으로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언제나 빨리빨리 3년, 5년, 10년 계획을 세워 세상 탐욕에 전쟁을 선포하며 주님을 뒤로한 채 전진했지만, 저는 낙심과 실망으로 포도나무 밖에 있는 가지처럼 메말라 갔습니다. 가끔 술에 취해, '주님! 거기에 계신가요?' 하며 물어보는 저를 발견했었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때였습니다.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바짝 세운 저게 주님은 예쁜 고슴도치를 보내주셨는데, 그녀는 달랐고 언제나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같은 고슴도치이기에 가시 없는 가슴을 열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아내의 기도 덕분에 저는 주님 품으로 서서히 돌아왔고, 아내의 긴 세월의 새벽기도와 함께했던 성경 공부 목사님들과 클래스 메이트들의 기도로 아이가 생기면서 저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 갔습니다. 목장 모임에도 나가게 되었고, 3부 찬양팀을 섬기면서, 목자님의 인도아래 성경 말씀을 매일 읽는 훈련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3부 찬

양팀의 팀장으로 세워 주셨고, 주님과 밀접한 관계의 필요성을 시험과 고난 중에 일깨워 주시고 저의 믿음을 더욱 단단히 하셨습니다. 그 시험과 고난은 새벽에 주님과 함께 "경청의 방" Q.T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올려 드릴 때 제가 주님의 포도나무 안에 거하고, 주님이 제 마음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받은 상처 때문에 화가 많고 짜증이 많았던 저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영접한 후 성령님이 제 마음에 오셔서, 조금씩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써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주님께 제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내 안에 있는 온갖 죄와 사탄의 속삭임을 대신 물리쳐 주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글 | 김태형 (산호세평원 평안목장, 3부 찬양팀장)



MYO Testimony

I was going into Mexico with lots of doubts. I thought I was saved, but now that I look back, I can see I wasn't. I was so ignorant and aware of others, but never was self-aware. I never examined my own self, which led to pride and self-righteousness. I never, as the Bible calls it, 'came to myself.' I always assumed I was going to heaven, so whenever the pastor said to repent for my sins or make Jesus my Lord, I just ignored it. I struggled a lot with insecurity, loneliness, and self-hatred. I was always judged for many things, which made me always try to please people.

I would always think, "Is that person judging me?" And to make sure nobody judged me, I conformed to the standard the world held as 'normal.' This is why around my friends I would act so worldly, and at church and at home I would be a nice, quiet kid. I hid behind a mask, and pretended to be the person that people wanted me to be. I isolated myself, and nobody knew about my inner struggles. I was like a turtle who tucks himself into a shell. I started struggling with apathy, depression, and self-hatred. I hated myself for being too 'this' and too 'that.' All of this was happening from 3rd-6th grade, so at a young age, I had a daily internal war with myself.

I never truly knew God, but every time I was sinning, He was knocking on my heart, saying to come to him. I always ignored Him. To be honest, I only went to Mexico because my friends were going. On the first day in Mexico, Pastor Brian said there were two kinds of people: people-pleasers and worshippers. I truly examined myself, and even though my heart tried to deny it, it was obvious I was a people-pleaser.

At the night service, I just poured out all of the emotions pent up inside me for my whole life, my brokenness, loneliness, shame, and anger. Every time I got rejected, I was just asking Him, "Where were you all this time?" God just gently told me, "I have been with you, but you've always been ignoring me." And when I took a look back at my life, I realized God had been asking time and time again to love him back, and I had always said no. I accepted Him as my Lord and Savior. He showed every moment when I was complaining about my sorrow while He sacrificed His son Jesus for me.

Then, tears started to flow. Through the whole time from that Wednesday to today, it's been a crazy journey. I've been walking with him, and it's been amazing. God lifted my burdens, and broke my chains. I no longer struggle with insecurity, loneliness, or self-hatred. My depression was cured. He calmed my anger. I no longer conform to the world, but I have been transformed.

Written by Mathew Kim (7th grade)

My masked feeling

Before I went to the San Jose Mission, I had already felt and experienced His love and presence since my first Winter retreat. However, I was unable to really understand it until I went to the San Jose Mission.

Before, I thought that ignoring my problems would make them go away. I always tried to be happy and smile through the problems, but I knew it was fake. Sometimes, I smiled just for my friends and family when they were upset although I was no better. However, when I let loose, I let loose real bad.

I always tried to remain calm and composed, when I got really angry and annoyed at the people who insulted or pushed me around. I got tempted to punch or kick them for thinking they were above me, and I almost did a few times. When boys thought they were better, I wanted to punch them all the way to the moon where they wouldn't bother me.

However, when I went to the San Jose Mission, I was surprised to see all the kids younger than me whose parents were dead or left them. I cried for them so much that it could fill a river. I realized that I took a lot for granted, like family and friends.

At the mission, Pastor Brian gave us two goals: to serve and meet God. I was so focused on doing those two things, and I forgot about serving others. I was always so focused on what I was supposed to do, and I didn't think of others. I finally realized this when I was thinking about how to serve God next.

When we were there, we read Acts and 1 John. When reading them and taking notes, I felt as if God was telling me to let go of the fake happiness I had for others and be real with people.

Written by Joy Kim (7th grade)





“What My Time at SF City Impact Taught Me”

I went on this trip with essentially only one prayer, “Lord, please allow me to find a purpose in going on this mission.” This was my second year going to SF Missions, and I was eager to apply the experience I had gained from last year. The organization we were working with, SF City Impact, was committed to helping the homeless and the impoverished realize that they were still wanted by God despite their failures and misgivings. Something we don’t realize about the people in this city is that while there are so many of them, not a lot of them have friends to make them feel wanted. Thousands spend their days either cooped up in a single room occupancy or quietly sitting on the sidewalk with nothing to do. To me, that sounded incredibly boring, so I made it my personal goal to reach out to as many people as possible and at least make someone’s day meaningf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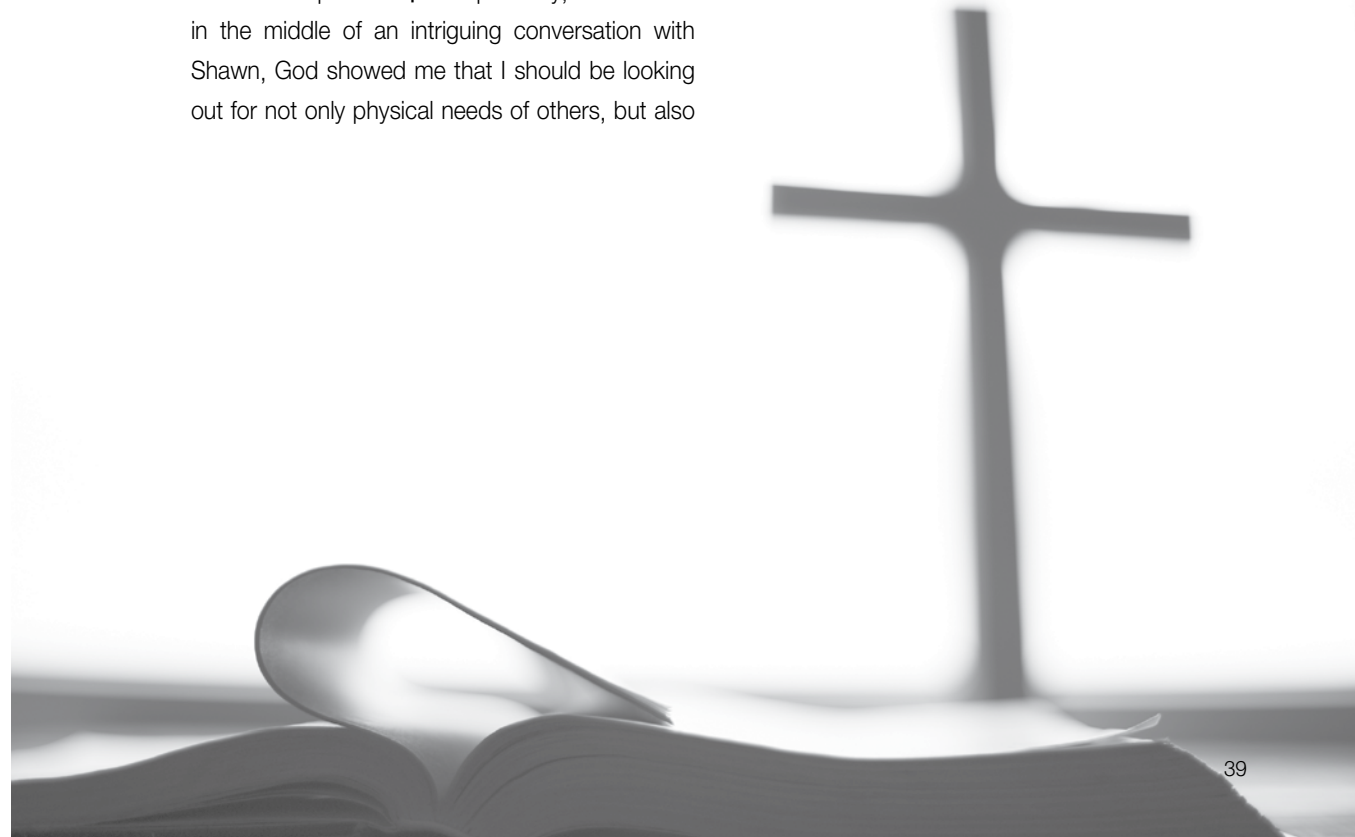
Over that week, we did many tasks ranging from cooking meals to handing out flowers. However, the most memorable task to me was T.L. Revive. T.L. Revive is a free cookout hosted in the parking lot next to the City Impact headquarters where people could come and eat. Additionally, they could sit down and have a conversation with one of us for as long as they wanted. Each time I helped out, I would come across somebody with an interesting story. They would share about their troubles with me, and surprisingly I felt drawn to talk about my struggles, too. Most of my interactions went that way until I met a man named Shawn. Shawn was sitting at a table with his hood pulled over his head. Intrigued, I went up to him ready for whatever might be waiting for me, or at least I thought I was.

Shawn is a man with some psychological problems, but I managed to carry a conversation with him. The instant I started asking him about himself, he dove straight into a story from his past. He had lived many past lives, installed secret world ending devices underground, and even claimed to have held God hostage. Claiming to be omniscient and omnipotent, he threatened to end the world if he didn’t get another cheeseburger. Although Shawn was saying all of those strange things, I was convinced that God was trying to tell me something through that interaction.

Throughout my conversations with people during this week, I had been secretly trying to find out what God’s plan was. Unexpectedly, when I was in the middle of an intriguing conversation with Shawn, God showed me that I should be looking out for not only physical needs of others, but also

spiritual needs as well. During my experiences at church and school, I often try to talk to people about their physical lives, homework, friends, or games. I realized that even at church, I rarely try to talk to people about their walk with God intentionally. Over time, I’ve been given many more chances to talk about my faith with others at school. Overall, through finding the confidence to talk about God to others, I have been able to be feel closer with Him.

Written by Caleb Choi (10th grade)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매우 행복하고 감격스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온 후 세상 문화를 쫓아 점점 세상에 빠져 이 세상 성공을 위해 살면서, 세상 염려로 믿음 없이 살아왔습니다. 삶 가운데 만족되는 것이 없었고 마음속엔 항상 불평불만이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참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왔었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보자는 결심에 올래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단기선교부에서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김명섭 부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산호세 평원인데 네팔 단기선교에 가보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받았고, 제가 가면 부장님도 가시겠다는 거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평안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하며 순종하였습니다.

네팔에서 열린 청소년 캠프 가운데 열두 교회에서 모인 청년들과 미국에서 건너온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이 캠프가 네팔 청년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저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조종연 목사님의 “목적 이끄는 삶” 강의가 기대되었고 열심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문득 ‘내가 여기에 왜 왔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네팔에 섬기러 온 목적보다 받을 은혜를 더 원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입으로는 항상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말해왔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일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자아를 보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신 목적들을 알게 되었고, 옛날부터 교수나 사업가가 되고 싶었던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하면 좋



은 아이들을 이용해서 사업을 해볼까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이용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고 추상적으로 생각해본 적은 있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 정말 원하는 것은 교수라는 직업을 통해 안정된 삶을 원했었고 사업을 통해 부유한 삶을 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강의 중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때 중요한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흔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리고 저의 욕망과 야망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족하였던 것 같습니다.

괴로웠고 힘들었던 지난날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며 회복시키시기 위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모든 것은 다 되어도 이것들만은 안 돼요’라며 내려놓지 않고 숨겨놓았던 야망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회개하며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네팔에서 아버지의 집을 방문하며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홍추민 선교사님은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에게 믿음 안에서와 주님 안에서 아빠가 되어주며 단순 구제가 아닌 네팔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영적 리더 제자로 양육하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은 선교사님을 한국어로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아빠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매우 다정하고 아이들 모두 어두운 곳 없이 밝아 보였습니다. 또 아버지의 집 아이들이 주빌리 교회에서 리더로서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며 선교사님과 동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도록 양육하고, 네팔 땅에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섬기시는 선교사님의 삶이 정말 저에게 와닿았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선교사님의 삶을 직접 보며 하나님께서 제 삶을 많이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5살 딸아이 예은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기에 예은이가 하나님의 딸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함부로 대할 때가 있는데, 아내와 예은이가 하나님의 딸이며 동역자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셨으니 더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예은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데 게을렀던 지난날의 모습이 정말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내와 딸을 섬기는 귀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앞으로 함께 동역할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저희를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글 | 김형준 A (산호세평원, 베니목장, 단기선교부)



예수님과 나의 1일째 되는 날

저는 어린 시절 잠깐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간식을 먹으며 노래도 배우면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학교와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오다가 결혼 후 아들 둘을 낳고, 기회가 돼서 13년 전에 미국 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교회에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하려면 가족과 함께 교회에 나가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주위 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교회에 몇 번 나갔지만, 아이들의 바쁜 주말 활동으로 자주 교회에 빠지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는 가까워질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춘기 아들들의 반항이 시작되고, 또 항상 가까워서 많이 도와주던 남편의 잦은 출장으로 자리를 많이 비우면서 저 혼자 감당하기 힘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시기였습니다. 매일매일 고민하고 갈팡질팡하는 저에게 오랫동안 저를 하나님 자녀로 인도하기 위해 애써주신 박영수 집사님의 “이번 주 주일예배에 같이 가~”라는 제안에 왠지 마음이 끌리고 그 말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임마누엘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려고 마음을 열고 나니 조곤조곤 나지막이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저의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목장 식구

들이 저의 큰아들 고등학교 졸업식에도 와 주셔서 큰 엄마, 큰아빠처럼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정성스럽게 맛난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등등... 많은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저의 마음도 서서히 녹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일예배와 거의 동시에 시작한 일대일 양육자 과정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 적고 의미를 되새기며 하는 공부 과정 동안 저를 혼란스럽게 하는 마음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 공부하는 과정 동안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했는데 특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걱정이 밀려올 때 저에게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주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일대일 양육자 과정을 마치면서 이 공부를 인도해 주신 리더님의 제안과 함께 저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에게, 또 모든 이에게 선포하는 세례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예수영접 모임 때 맹세한 것처럼 매일 성경을 읽으며,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또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가족과 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 우리 가족과 부모님도 창조주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알고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하나님의 딸로 거듭나기까지 저에게 그분의 넘치는 사랑을 보여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글 | 강미영 (산호세평원 GLP목장)



“성경 탐구 40일”을 수강하며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는 심미경입니다. 이번 2018년 가을 학기 성경학교 과정인 성경탐구 40일 (신약) 과목을 수강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올 1월부터 남편과 수요일예배를 참석하던 중, 하나님께서 이번 가을 학기 성경학교도 참석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성경학교 안내문을 처음 보았을 때, 남편과 함께 꼭 참석하고는 싶지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이 수요일예배에 함께 가는 것도 감사하고 멀리 가 주는 것도 고마운데, 목요일에 성경학교까지 참석하자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수요일예배 대신 성경 학기 중에는 목요일에 가자고 했더니, 놀랍게도 남편이 좋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수요일예배에 참석 못 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best option은 아니었지만, 저로서는 최선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가자고는 못 하겠고, 수요일예배 대신에 여차피 운전하고 멀리 가는 것 목요일에 가자고 했더니 남편이 그러자는 것입니다.

성경 탐구 40일 (신약) 강의 첫날 왔을 때, 목사님께서 좋은 교재로 쉽고 재미있게 신약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직



접 만드신 교재를 매주 프린트 해서서, 이스라엘, 지중해, 갈릴리 호수, 예루살렘 지도를 매주 외워서 그리게 하시면서 머릿속에 쓱쓱 넣어 주시니 너무나 좋았습니다.



성경일독표에 따라 10월부터 신약을 읽을 때, 전에는 몰랐던 지명과 지리가 머릿속에 확 들어오면서, 3차원으로 이해가 잘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1년 동안 전도하며 사역을 했다는 말씀을 읽으면,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이 ‘아~ 오른쪽 안디옥에서 그 험한 왼쪽 산을 넘어 사랑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 그곳에 가서, 몸소 데려다가 초대교회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에서 훈련 및 동역을 하셨구나’ 하고, 그 장면이 잘 상상되었습니다. 이 클래스를 듣기 전보다 성경 읽는 풍성함과 이해가 약 10배 정도 향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믿음의 선배님들이 같은 반에 계셔서, 커멘트 하시고 질문하실 때, 아~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 배우면서 좋았습니다. 또 정성스러운 음식을 맛있게 해서서 나누실 때, 참 사랑이 담백 담긴 섬김을 맛보는 기쁨이 또한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기 2년 반 전까지는 산호세에 있는 미국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았습니다.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하루에 여러 시간 보곤 했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채워지지 않고, 늘 짜증스럽고 피곤한 나날이었습니다. 임마누엘에 오면서 성경 일독을 시작하고, 목장 예배도 참석하게 되고, 수요일예배, 토요 새벽 기도를 드리며 주님께 울부짖으면서 여러 시간 드라마를 보던 습관을 금방 고쳐 주셨습니다.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면서 또 많은 신앙 훈련을 하게 되고, 학생들을 섬기면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유스부 섬기는 일 등 주님의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고, 열심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 노력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을 많이 가능하게 바꾸어 주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절절히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역대하 7:14-15)

글 | 심미경 (남부평원 코스타리카목장, 2부 중고등부 교사 및 예배팀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7~39)

부모님을 떠나 먼 타국에서 시작된 저의 결혼 생활, 사랑의 열매로 두 아이도 낳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여전히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은 제 마음에 늘 가득했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와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전화 통화를 하며 서로를 확인하며 챙겨주는 그런 모녀 사이였습니다.

서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폐암이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완치가 힘들다는 폐암...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를 당장 잃을 것만 같았던 두려움과 절망이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달려가 만났던 어머니는 저와는 달리 너무나 평안하셨습니다. 저를 반겨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신뢰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저를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

앗을 수 없느니라.” (요 10:28~29)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곧 찾아올 이별의 슬픔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머니의 참된 평안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자녀 됨의 권세와 축복을 이미 누리고 계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어머니에게 허락된 시간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셨습니다. 그 힘들고 외로웠던 항암치료도 힘든 내색 안 하시며 담담함으로 이겨내셨던 어머니.

어머니에게는 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입술에 머무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는 늘 피아노를 연주하시며 저와 동생에게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그 아프신 중에도 손자들과 손뻥을 치시며 기쁘게 찬양하셨던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입술이 다 터지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찬양하시며 더 많것 찬양하고 싶다고 하셨던 어머니. 지금은 천국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 거라 믿습니다.

그토록 어머니가 찬양하며 사랑하셨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만 하는 가장 아픈 그곳에 항상 함께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소망을 잃을 때 주님은 항상 제게 다가오셨고, 실망할 때에도 주님은 저



의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매 순간 그분의 넘치는 은혜와 변함없으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바라보고 쫓아왔던 많은 것들이 헛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제 삶의 중심에 오셔서 그 무엇과 비교 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가장 귀한 분이 되셨습니다. 어머니가 늘 즐겨 부르시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이 이젠 저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꾀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별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새 힘을 주시고 영과 육을 회복시키시며 또한, 저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그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시 105:1~3)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과 아픔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보다 앞서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글 | 탁선경 (산호세평원 요르단암만목장, 1부 시온찬양대 반주자)

하나님의 훈련지, 임마누엘

임마누엘 가족들이 많아 서로 다 알고 지낼 수 없었는데,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해 오신 이야기와 가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 나이 29살, 노처녀 딱지를 붙이기 직전에 후배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을 소개받았지만, 제가 정한 조건에 맞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대로 된 사람 한번 만나지 못하는 게 참 속상하고 답답했는데, 하나님은 늘 마지막까지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요. ㅎㅎ

그런데 후배로부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었죠. 그 조건은 첫째 기독교인, 둘째 부모님이 믿음이 좋은 분들, 셋째는 군필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고 보니 남편은 결혼할 생각도 없고, 유학생이 아닌 군필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저는 한

국을 떠나 사는 것은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여자친구와 교제할 마음도 없는 남편을 어렵게 설득해서 후배가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희가 만났던 주일 아침, 남편은 목사님의 엉뚱한 발언에 마음이 좋지 않았대요. 리더 모임과 예배 시간 두 번에 걸쳐 "자매들은 기도하는 형제를 만나고, 형제들은 운동하는 자매를 만나라". "참, 목사님, 실없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시네"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저를 만났는데, 남편에게 저를 소개하는 후배의 첫 마디는 "이 언니는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해요"였습니다. 그렇게 장거리 연애가 시작되면서 알게 된 것은 서로의 성격이 엄청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애 1년 반만인 2007년 결혼식 때, 남편은 "당신과 나는 매우 다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다름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신혼여행에서부터 첫 보금자리를 구하는 것, 육아, 음식 등등 모든 것에 선택과 기준이 참 달랐습니다.



믿음의 모습도 많이 달랐습니다. 찬양할 때 손을 절대 안 들고, 설교 중에는 '아멘' 소리도 안 하고 그저 목사님만 바라 보며, 예배 드릴 때, 앞자리에 앉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는 남편을 졸라 3부 예배 찬양팀을 시작하면서 임마누엘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2년에 셋째 다은이를 낳게 되면서 가족도 없는 이 힘든 산후세를 떠나 시댁으로 이주를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말씀이 없으시면 있는 것이 응답이다"라는 말씀에 발걸음을 멈추며, 왜? 있으라고 하시는지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고, 그 후 저는 지금까지 쉼새 없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수요찬양팀, 2013년엔 목사님 설교를 통해 남편에게 순종하는 훈련과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사건과 전도훈련, 2014년 남편께서 때를 주시고 하늘 상급 쌓을 수 있게 은 저희 부부에게 목자에 대한 소망을 사용하여 주심이 감사할 뿐입니다. 을 함께 품게 하셔서 목사 임직과 일대일 양육자 훈련, 2015년에는 임마누엘에서 하시겠다고 하신 훈련 미주 1차 영성 일기 세미나, 2016년 전교인 성경 일독과 예능 찬양팀, 2017년은 목장 올리브 블레싱을 통해 아이들 훈련과 하나님의 선물인 넷째 다애 임신과 출산, 그리고 지금 2018년, 저는 이제 걸음을 떼기 시작한 늦둥이 넷째와 세 아이들과 정신없이 바쁘지만, 제가 PLAN 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정들을 주님만 의지하며 딱 하루씩만 살아가는 훈련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다할 때까지 또 제게 주실 축복의 다른 이름인 훈련,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만나와 같은 그 훈련이 기대됩니다. 우리 세대보다 더 나은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훈련하고, 저희의 삶을 통해 아이들도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지체로서, 머리 되신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 막힘없이 건강하게 자라가길 기도합니다.

올해는 새롭게 화요여성 예배 찬양팀과 여성 예배 차일드 케어팀에 조인하게 되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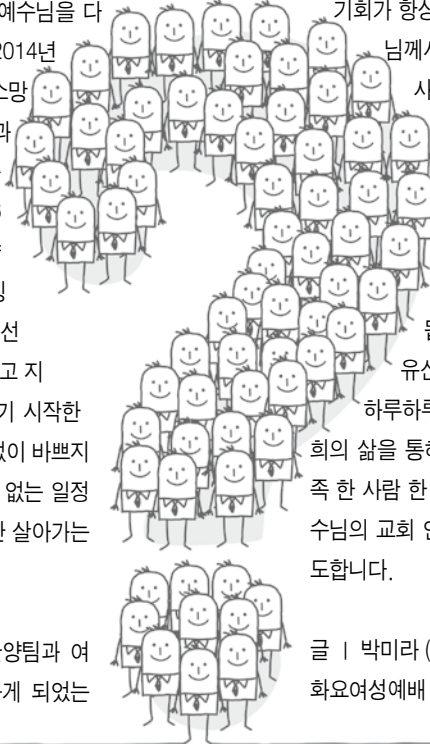
이전과 다른 훈련을 시키시려나 보다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훈련을 받는 중 마음이 힘들던 어느 날, '예수님, 예수님이랑 함께 가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예수님이랑 가면 꽃길이어야 하지 않나요?'하고 여쭙었는데, 마음이 금방 예수님과 꽃밭에 있는 듯 아름다워졌습니다. 그 주일 찬양 PPT 화면 내내 보라색 라벤더 꽃밭에 양을 안고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자상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지금도 지칠 때면 예수님과 걸어가는 꽃밭을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며 힘이 납니다.

지난 11년을 돌아보니 변해 있는 저희 부부의 모습, 네 자녀 다인, 다우, 다은, 다애,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이 저희가 받은 축복이며 우리 가정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섬길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님도 이제는 알기에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고 하늘 상급 쌓을 수 있게 사용하여 주심이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만나와 같은 그 훈련이 기대됩니다. 우리 세대보다 더 나은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훈련하고, 저희의 삶을 통해 아이들도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지체로서, 머리 되신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 막힘없이 건강하게 자라가길 기도합니다.

글 | 박미라 (남부평원 GUIDING LIGHT 목장 부목자, 화요여성예배 찬양팀, 일대일 양육자)



청소년 감동 캠프를 마치고

감동 캠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프로그램 마지막에 엄마의 발을 씻어 주는 시간이었는데, 아들이 하염없이 평평 울면서 저의 발을 정성껏 씻어주었습니다. 물이 아니라 아들의 눈물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심을 느낄 수 있던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벅차게 느껴서가 아닐까요? 이 소중한 청소년 감동 캠프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갈렙에게
오늘 엄마랑 청소년 감동 캠프에 같이 와서 정말 기뻐. 엄마와 아빠는 우리 아들을 많이 사랑한다. 너 말고 다른 아이를 상상할 수 없단다. 우리에게 더 할 수 없이 많은 행복을 주는 너 최고의 아들이야. 너는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를 준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목적으로 널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라고 믿어. 엄마와 아빠는 늘 기도한다.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아이로 자라도록 축복해 달라고.

네가 벌써 중학생이 되었고 금방 고등학생이 되겠지. 그리고 엄마 아빠 도움 없이 더 독립적이 될 테고.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라 늘 미안하고 대견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많이 자랐는지.... 엄마는 네가 엄마에게 팔 벌려 안아주면서 예쁜 미소로 "I love you, mom" 할 때가 가장 행복해. 엄마가 자주 했던 말 알지? 너 백만 불짜리 미소를 갖고 있어. 엄마와 아빠는 늘 네 편인가 알지? 앞으로 살면서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든 엄마 아빠는 어떤 말든 들어주고, 네 곁에 있어 주고 기도할 거란다. 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란단다. 사랑해 아들

엄마 김수연 (산호세평원, 모로코목장)

Dear Mom,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 great mother. You are always there for me when I need you, and I always feel loved. Like I said, you and dad are like my angels. You're the best caretaker I can ever ask for on earth. Some of the best moments in my life are when you say simple things such as "I love you" or "I am proud of you." I treasure those words, which make me feel that I'm amazing. Even through those tough taekwondo tests or when I perform, the fact that you and dad are there instantly fills me with confidence. I am so thankful for it, and you taught me to love and others before myself. Also, I learned so many new skills and you inspired me to reach for the top and beyond. I feel sorry that I wasn't always thankful for those things and I put my friends and activities before you. Often times, I think that I am alone and my friends are my remedy, but you are right there to fill my loneliness. Every day, I want to hear that you love me, and the one sentence I have for you is that "I love you, t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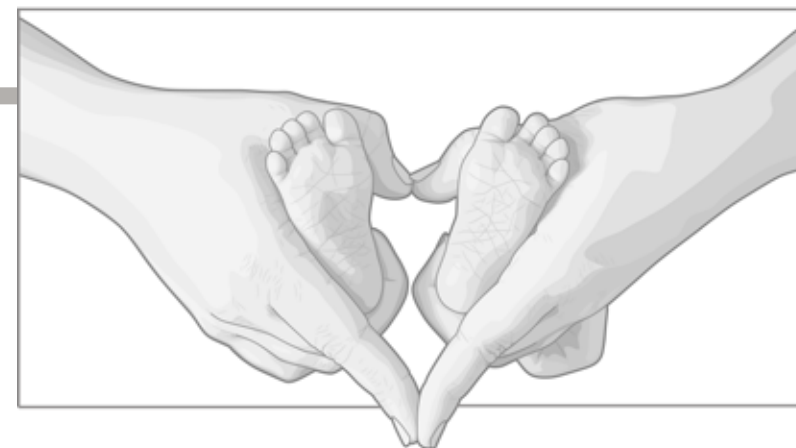
Love,
Caleb

사랑하는 엄마~~
최고의 엄마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엄마는 늘 제가 필요할 때 계셔주셨고 제가 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보살펴 주시는 엄마는 저에게 천사입니다. 제가 생각나는 최고의 순간은 엄마가 "사랑해" 혹은 "난 네가 자랑스러워"라고 말해 주는 작은 순간들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행복입니다.

제가 태권도 시험이나 떨리는 퍼포먼스를 할 때도 엄마는 늘 자신감을 심어주셔서 늘 고마웠어요. 또한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새로운 걸 늘 배울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늘 최선을 다하라고 영감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고마움을 가끔 잊고 엄마보다는 친구들이랑 컴퓨터 게임 하는 걸 우선으로 둘 때가 가끔 있어 미안합니다. 제가 외동아들이라 외롭다는 생각에 친구들을 많이 의지할 때가 있지만 제가 외롭고 힘들 때 그곳에 있어 주신 건 엄마 아빠입니다. 매일 매일 엄마가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에게도 한가지 말하고 싶은 말은 "엄마,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아들, Cale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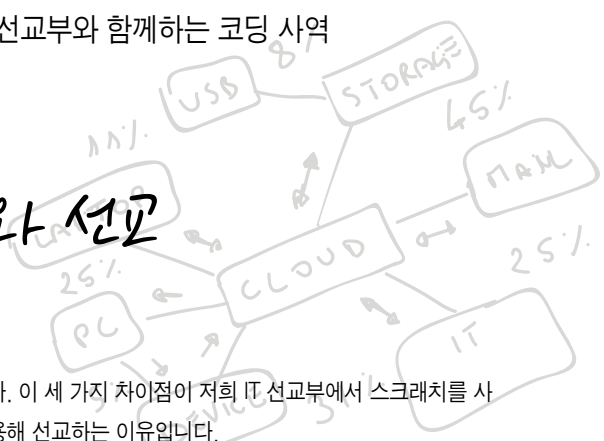
스크래치와 선교

2003년에 미국 MIT 대학원생들이 만든 스크래치라는 코딩 언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코딩을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코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창의력과 논리적 사고력 증진을 어린 나이부터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코딩 언어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요소가 창의력과 논리적 사고력이라는 신념 아래 만들어진 코딩 언어입니다. 다른 기존의 텍스트 베이스의 코딩 언어들과 비교해 스크래치는 두드러지는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스크래치는 코딩을 배우고 사용할 수 있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스크래치를 배워서 짧은 시간 안에 직업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딩 언어는 아닙니다. 그런 목적을 가진 코딩 언어들은 따로 있습니다. 다른 언어들은 배우기가 어렵지만, 스크래치는 코딩의 문턱을 많이 낮추어서 8살 전후의 나이부터 코딩을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배우기 쉬워서 누구나 다 코딩의 혜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두번째 차이점입니다. 세번째 차이점은 스크래치는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언어라는 것입니다. 코딩 방식과 결과물이 시각적 그리고 청각적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창의력 계발과 표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다. 이 세 가지 차이점이 저희 IT 선교부에서 스크래치를 사용해 선교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스크래치 교육이 선교지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대부분 미전도 종족이 사는 곳은 생활 환경이 열악합니다. 교육 환경은 더더욱 열악하고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지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도록 복음과 동시에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십니다. 스크래치를 배워서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 효과를 단 기간에 평가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스크래치 사용으로 다른 교육이 줄 수 없는 더 큰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직업을 넘어서 그 이상의 직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스크래치는 미래에 대한 준비와 동시에 복음 전달을 가능케 해줍니다. 스크래치는 복음과 코딩을 함께 가르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 복음만 전하는 데 있어서 이해를 돕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IT 선교부에서 주변 소수민족 교회와 선교지에서 봉사할 교사 양성과 콘텐츠 개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교회 내



의 스크래치 킹덤 코딩스쿨을 소개합니다. 현재 초급반, 중급반 그리고 고급반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급반은 일 년에 한 번 5주 코스로 운영되며 중급반과 고급반은 매달 한 번씩 일 년 내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스크래치를 가르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스크래치를 사용해 성경 내용이 담긴 작품을 만들으로써 성경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스크래치를 배워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래치를 배워서 성경적 내용을 담은 작품을 만들고 또 그 작품이 스크래치를 배우는 선교지 현지 분들에게 소개되고 그 작품을 통해 누군가의 삶이 변한다면 이것이 바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스크래치를 통한 선교는 선교하는 많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최상의 선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내 스크래치 클래스를 통해서 성경과 스크래치를 어떻게 접목하는지 배우게 되고 또 어떤 목적으로 스크래치를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스크래치가 좋은 선교 도구이지만 코딩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더더욱 아닙니다. 코딩으로 얻는 장점들을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도 있고 복음을 다른 방법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컴퓨터 한 대와 스크래치가 열악한 환경의 선교지 아이들과 성인들에게 미래를 설계하는 도구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스크래치는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스크래치를 통해 선교에 활용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많은 성경 내용을 담은 스크래치 작품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뽑아서 각색하실분, 이야기에 필요한 그래픽을 만들 분, 각색된 이야기와 그래픽을 스크래치로 표현하실 분 그리고 스크래치 교사 또는 조교로 헌신하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 네가지 중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해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지난 3년간 교회에서 아이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스크래치 교육을 해온 이유도 이 네 가지를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아직 이 사역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나 스크래치를 통한 성경적 코딩교육의 가능성을 보시고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실 것이라 믿습니다. 선교지에 그리고 선교를 하는 분들 모두에게 유익한 도구라 믿기에 이 스크래치를 통한 선교가 더 확산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선교를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셔서 망설이시는 성도가 계신다면 저희 IT 선교부에 오셔서 킹덤 코딩스쿨에서 선교의 첫걸음을 내딛으시면 어떨까요?

글 | 김인환 A (IT 선교부장, 사랑의 음식팀)



가정예배 이야기



저에게는 가정예배의 몇 가지 추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일은 꿈도 못 꾸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친구 오빠가 대학에 합격했다고 기뻐하면서 집으로 들이닥치자 갑자기 집안이 축제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친구 아버지께서는 예배를 드리자고 말씀하셨고, 그 가정이 익숙한 모습으로 감사와 기쁨에 겨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동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친구의 가정이 매우 부러웠고, 저도 언젠가는 기쁘고 감사할 일을 맞았을 때 무엇보다 먼저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꼭 드리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막내아들이 6살 때 그 당시 우리 가족은 남편이 주재원으로 중국에서 같이 살고 있을 때였고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느라 힘들어 할 때 우리 가족은 매 주는 아니었지만,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정예배에서 남편이 막내에게 “인영아, 너 성령이 무엇인지 아니?”라고 질문을 하였는데, 주저함 없이 막내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대답을 하면서 “응, 중국영화에서 씬 잘하고, 잘 웃기는 배우 이름이야”라고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령’을 ‘성룡’으로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빵 터져버린 분위기를 수습하느라 애를 먹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13년 전, 한국에서 바쁘게 살아왔던 남편이 이를 접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맨땅에 헤딩하듯 고군분투하며 가족을 부양하느라 힘들어할 때 드렸던 가정예배는 우리 삶의 자양분이었고, 가족 간의 깊은 유대감을 확인시켜주는 자리였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 냉장고에 빈 종이를 붙이고 감사할 일이 생길 때마다 적었던 수많은 감사의 내용을 보면 눈시울이 젖습니다. 이렇듯 내 삶에 가정예배는 어려울 때나 즐거웠을 때, 그리고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과 가족들이 함께 하는 자리였고, 예배를 통하여 위로와 회복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서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을 가족 모두가 맞추기 힘들어서 함께 드릴 시간이 없거나, 또한 가정예배를 드리더라도 설교를 한다며 자녀의 잘못을 훈계하고, 부모의 권위를 잘못 내세우는 실수를 반복하여 결국 자녀들이 가정예배를 피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정예배에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어느덧 다시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4년 전까지만 해도 매월, 가정 예배지를 발행하였다고 합니다. 매주 한 번씩 가정예배를 드리는 포맷으로 한 달에 100부씩을 비치하였는데, 한 달이 지나서 새로운 것을 비치하려고 보면 절반도 가져가지 않고 남아있어 힘이 빠졌다고 합니다. 결국 더 이상 발간되지 않았고, 지난해에 새로 바뀐 교회의 웹사이트마저도 별도의 가정예배 소개 PAGE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교회 가정예배 섬김팀에서 새로운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매주 한 번씩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좀 더 쉬운 접근 방법으로 가정의 대소사와 절기를 테마별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예배지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가정은 한국과 미국에서 3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아마 열 번 정도는 이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할 때마다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거취를 옮길 때마다 항상 단을 쌓고 예배하였던 모습이 내 마음에 각인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THANKSGIVING DAY나 성탄절, 새해 첫날 등은 주일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교회에서 예배가 열리지 않을 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주일이 겹치지 않는 절기나 이사, 생일, 아플 때, 추도할 때, 자녀가 합격했을 때, 개학했을 때, 가족 중에 자녀나 남편이 먼 곳으로 갈 때, 그리고 결혼기념일 등 가정의 희로애락을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단을 쌓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각 가정에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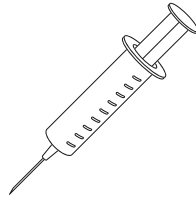
‘하나님, 저희 가정예배의 시작은 미약하나 후손 대대로 창대하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글 | 송옥진 (서부평원 도교목장 부목자, 가정사역부장)



"DO-IT-YOURSELF" VACCINE

그리고 "정기(正氣)"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감기에 걸리는 환자도 늘고 있으며, 독감 예방접종을 권유하는 이야기도 많아지고 있다. 감기와 독감에 대해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기(COMMON COLD)"와 "독감(INFLUENZA)"은 격(?)이 다르다.

감기는 콧물, 코막힘, 가벼운 기침, 가래, 인후통, 미열, 가벼운 몸살 기운, 경미한 두통 등의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고 대개 1주~10일 이내에 가라앉는다. 하지만 독감은 말 그대로 지독한 감기 증상을 수반하는데, 전신에 증상이 급격하게 진행된다. 즉, 100.4(38) 이상의 고열을 수반하고 전신의 근육통, 심한 기침, 콧물, 코막힘, 오한, 피로, 식욕부진,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위중하게 진행되고, 2~3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굳이 비유한다면 "감기"는 소나기 정도라면 "독감"은 4~5등급의 허리케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독감은 건강한 사람이라면 2~3주 후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지만, 소아, 노인, 만성 심장질환, 폐 질환, 신장 질환을 앓고 있거나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고 있는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장기 이식환자,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환자, HIV/AIDS 환자 등)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서 의사와 상의한 후 예방 접종을 하기를 권장한다. 백신 접종 후 효과는 1개월 후부터 나타나 5~6개월 정도 지속된다. 그리고 독감 바이러스는 춥고, 건조해 지는 12월~5월에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10월~11월이 접종 적기라 할 수 있다. 해마다 유행이 예측되는 균주를 포함한 독감백신을 접종하는데, 백신에 사용된 균주와 실제 유행하는 균주가 일치할 경우 예방효과가 70~90% 이르지만, 작년에 미국의 경우 예방효과가 10%내외에 불과했다는 보고도 있다. 백신을 맹신하면 안 되지만, 위에서 언급한 취약층이나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독감 유행 시기에는 생활의 리듬을 깨지 않고 피곤해지지 않도록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 자주 씻기"를 강력히 추천한다. 손은 독감 바이러스 및 각종 세균을 눈, 코, 입으로 전파하는 주된 통로이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실험 결과 성인의 경우 시간당 평균 3.3~3.6회 얼굴을 만진다고 한다.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약 50회 정도 얼굴을 만지게 되는데, 손 위생을 철저히 하면 독감 및 각종 병원균의 전파 확률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 부득이하게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급적 손을 얼굴로 가져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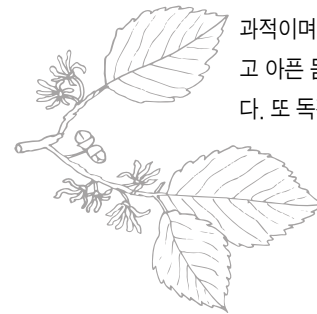


또한, 독감 바이러스는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레스 표면에 약 48 시간까지도 서식이 가능하므로 주위에 독감 환자가 없더라도 문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외출 후 알코올 함유 손 세정제나 비누를 이용해 손을 자주 씻어주는 것이 좋다. 아이들의 경우 친구들과 장난치고 악수도 하고 한 후 그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기도 하곤 하는데 바이러스나 세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항상 손을 씻고 음식을 먹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엔 포크나 젓가락 등의 식기를 이용해 음식을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덧붙여 "기침 예절"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재채기나 기침할 때에는 티슈 등으로 꼭 입을 가리도록 하고, 티슈가 없는 경우엔 팔꿈치로 가리도록 하여 세균이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떨어뜨리도록 한다. 우리 주변에 손을 철저히 잘 씻고 다닌 후 감기에 거의 걸리지 않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지인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CDC)에서 손 씻기를 왜 "DO-IT-YOURSELF" VACCINE이라 부르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면역력을 증진시키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면 병균의 전염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의학에서는 "정기존내 사불가간(正氣存內 邪不可干)"이라 하여 몸에 정기(몸의 체력, 면역력)가 잘 간직되어 있으면 사기(나쁜 기운)가 감히 침범할 수 없다고 하여 건강 유지의 핵심을 정기의 충실 여부로 본다. 또한 발병 후 치료하는 것보다 발병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더 중점을 둔다. 그래서 독감의 경우에도 한의학적으로는 호흡기 면역력을 강화시켜 독감을 예방하는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흔히 어린이 감기 예방 보약이라고 처방되어져 왔던 약재들이 호흡기 면역력을 증강시켜 주는 효과들이 뛰어난 약재들인데, 우리에게 익숙한 약재인 인삼이나 길경(도라지) 등이 그러한 대표적인 약재라 할 수 있다.

이미 진행된 독감의 경우에는 증세에 따라 고열 위주의 증상인 경우에는 헤파패독산, 소시호탕, 선방패독산 등의 약제가 효과적이며, 구토 설사 등의 위장의 이상이 주 증상인 경우에는 인삼양위탕, 광향정기산, 불환금정기산 등이 좋고, 온몸이 쑤시고 아픈 몸살 위주의 증상에는 갈근탕, 구미강활탕 등이 좋으며, 콧물 두통 기침 위주의 증상에는 삼소음, 소청룡탕 등이 좋다. 또 독감이 오래되어 낫지 않거나 몸이 허약한 경우에는 쌍화탕, 보중익기탕 등의 약제가 효과적이다.



글 | 이태업 장로 (서부평원 이고니온목장 목자, 2부 호산나 찬양대, 예능평원 담당)



예배와 영혼구원,
양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임마누엘장로교회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발행인	손원배
편찬인	황의철
기획	김정신
진행	김연희 한연선 김정신
사진	김홍배 윤영숙 김범진 박종현 김홍대 여환승 김기훈
교정 및 번역	성경하 이진경 황인주
편집 디자인	김유경 한 혁 정용익 윤주영 국세은
표지 그림	윤주영

표지 이야기

혹시 바쁜 일상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일보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번 한주를
또 올 한해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www.epcsj.org
408 263 5100

4435 Fortran Dr.
San Jose, CA 95134